朝鮮日報

十六日夕刊

時評

巡査의行悖

×

所謂警察의目的이어고하는것은 非違를制禦하고 公害를除去하야 써人民의生命財産의安全을 期한다는것이오 그精神은 될수잇는대로는犯罪를 未然에防止하라는데잇슴으로 그檢擧는오히려不得已한處置에 지나지못하는것이다 그런데 朝鮮안의警察을볼지며 그根本精神이顚倒되어잇는듯도하다 엇지하면罪를얼거 法網에집어넛는傾向도 적지안타 그러고 罪를엇는데잇서서도 警官의私嫌이 아니면 남의私嫌까지

路傍으로사가지고 덤비는일이非一非再다 都市에도그럿커니와地方에는 더욱그러하야人民의生命財産을 保護하기는姑捨하고도로혀 그것을威脅함에잇서서야 이를엇지法治國의警察制度라고 볼수잇슬가

×

昨紙에도 또소리못한事實이報道되엇다 安州警察署의 엇던巡査한분이 남의土地賣買契約에 덤비어 正當한權利行使者를 詐欺行爲로몰아嚴酷한取調를하는同時에 업는告訴人까지만들어 나종에는檢事局에까지 넘기엇다고한다 이만한事實로는 일의眞僞를速斷키어렵겟지마는檢事局에서 取調한結果 無根한일이라는것이判明되여 不起訴까지되엇다 그런아니라傳하는바에依하면 그巡査나

리는 些少한私嫌을 앙가품하기爲하야 誣告한것이라고한다

×

何如間 警官의職權으로는犯罪의理由有無는 莫論하고檢事局까지넘길수는 잇는모양이다 그러나 이만한權力이잇슴은 그것을가질만한相當한理由가 업지안켓지마는그러한職權을濫用하야 도로혀 人民의 生命財産을危害함에일으러서는 이것을救濟할만한制度가업지못할것이다 그럼으로 行政機關에는普通司法裁判이잇는同時에行政裁判이라는것이잇서이러한弊害를救濟해주는것이다마는 朝鮮안에서이러한制度를云爲하는것이 돌이어迂濶한수작인만치 朝鮮은 中世의警察國家時代보다도 오히려 더行

政官萬能時代이며 警察의跋扈하는영이다

×

그럼으로 우리는 法律에依賴하야 法律이認定하는範圍의일外지도 實現할길이茫茫하거든 하물며 그外의일에잇서서랴 地方의巡査라는것은 朝鮮에잇서서는 唯一의權力者로 自處하야 地方人民을제마음대로 弄絡할수잇다 이러한現象이 이러날때마다 우리는 한갓義憤의 울음을禁할수업다 우리는注意를게울니말고 우리의오직武器인 民衆의結束力으로써그가튼버르장이를 膺懲하지안흐면안되겟다 우리는적은일이라고 疎忽하게부려지말고 일거리만잇스면 싸워야겟다 곳싸움은 우리를發展시키는 貴重한條件이다

武漢政府는 第三北伐決定

江蘇安徽를收復한後

(漢口十三日發) 武漢政府는唐生智氏가湖南으로부터歸來한後 連日會議한結果南京派가山東에 侵入한機會를타서 一擧에安徽、江蘇를捲取하고蔣介石及其心腹을倒壞하며其他는 武漢派에收容하나一大勢力을扶植한後第三次北伐을實行하기로決定하고出動을準備하며各團體는蔣介石氏의罪狀과討伐의宣傳에 努力한다더라

兩派會戰은難免

武漢及南京兩派의會戰

(上海十五日發) 武漢及南京兩派의會戰은早晩間回避키어려운바 昨今武昌에는戰爭氣分이漲溢하야 軍服을着한娘子軍도잇고意氣가軒昻한學生軍도異彩를띄엇더라

新舊軍閥─共產派

三角戰爭이並起?

武漢南京의策戰이相應

(上海十三日發) 武漢政府는馮玉祥이武漢政府를 壓迫한다、何健、李品仙等이唐生智에對하야最後의決心을促하얏다」하는等自派에不利한宣傳을한것은南京政府를離斷하라는手段인것갓고그동안武漢政府는湖南湖北의秩序를恢復하며楊森、夏斗寅等의討伐에成功함을딸어南京派가北伐에專力하는틈을타서南京을攻擊하라는計劃을樹立한模樣인바各方面의情報를綜合해보면武漢政府의南京攻擊計劃이進行됨은事實이오이미動員한軍隊는何健氏의第三十五、張發奎氏의第四、程潛氏의第六、王均氏의第三과江西에駐屯한朱倍德氏의軍隊를아울러서約七萬이라稱하고九江、武穴의方面의約四萬이벌서集中되엇슴으로南京政府는濟南攻擊中에잇는陳調元氏의第三十七李宗仁氏의第七軍의全一部를分離하야武漢攻擊을豫備코저津浦線方面에敗退한듯이安慶蕪湖에 防禦線을 布設하는一方에武漢政府는南方政府의後方을攪亂코저日貨排斥의騷亂을機會삼어多數한共產黨員을上海、南京에潛入시킨다는情報는形勢가容易함으로南京當局은多少狼狽한氣色이잇는데馮玉祥氏는此形勢를알면서도傍觀態度를가질뿐아니라蔣介石軍이山東戰爭를一時中止하면그것을利用하야自己의軍隊로濟南을占領하라는計劃이잇다는말外지잇서서馮氏와武漢派사이에諒解가成立된形跡이보이는것은今後中國의舊軍閥、新軍閥、共產黨의三角戰이잇슬

北方政局은 平和裡에大變化?

奉天派蔣氏와直接交涉

(北京十五日發) 張學良韓麟春等을中心으로한南北妥協派는閻錫山氏의妥協仲介에 斷念을하고先般來蔣介石側과 直接交涉을開始하엿는바이새닭에 近近北方政局은平和裡에大變化가잇스리라고觀測하더라

楊氏入京으로 妥協勢力增大

(北京十五日發) 對南方妥協派의勢力은近來現著히增大하야政府府內에瀰漫하게되어張作霖氏의大元帥就任과共히大大的으로修理에着手한大元帥府의工事를最近中止한것도以上의情勢變化를語하는것으로殊히妥協派의頭目인楊宇霆氏가十五日入京함에딸아妥協의機運은一層迅速히發展될터이더라

蔣氏停戰要請說─

(北京十五日發) 蔣介石은張宗昌에게停戰을要請하엿더라

上海避難

武昌共產派

(漢口十三日發) 武漢派의共產黨巨頭譚平山、陳獨秀、鄧演達彭澤民等은모다上海에逃避하엿더라

博山土匪北進

日軍一隊派遣

適宜處置

(博山十三日發) 沂水의南十六里의地點에잇는土匪軍이南軍이라稱하고北進하야一部는萊蕪에向함으로同方面에잇는山東軍第十六旅는博山의南方十里에退却하야塹壕를파고防禦하는데張店에잇는日本派遣軍第十聯隊의第二大隊本部로부터熊谷中尉가引率하고鄉田司令官은適宜하게處置하라고命令하얏슴으로博山方面은다시緊張하게되엇더라

日人紡績困難

弗貨不賣로

(大阪電) 船津上海日華紡總務發電에依하면十三日中國銀行業者는突然日本人과의取引中止를實施한外닭에工賃支拂에必要한弗貨의取得에非常한困難을感하는바繼續하야徹底的으로弗貨不賣를하면工賃支拂이不能하게되어工場을閉鎖할수밧게업시될지未知더라

派兵後調査

(東京電) 齋藤長江方面의視察을한谷亞細亞局前第一課長은今朝東京發西下十五日夜先發인荒木參謀本部第一部長、林陸軍省軍事課長과神戶에서만나約一個月豫定으로靑島를向하야山東方面을視察할터인데右는山東派兵後의處置를調査하려함이더라

動產保險會社設立

(東京電) 政府는中國居住日本人財產保護에對하야東方會議以來秘密히協議를進行하든바動產災害保險會社를中國에設立하얏는데그組織은半官半民으로하고政府補助下에居留日本人을株主로하기로大體成案되엇더라

奧地利首府─ 全市到處에革命聲

社會黨員殺傷으로暴動

(維也納十五日發) 十五日墺地利首府에暴動이일어나一時는司法省에衝火하야同省의諸文書를燒失하엿다原因은社會黨員二名을殺害하고五名을負傷시킨三名의『파시스트』黨員을政府가釋放한外닭에勞働者의憤慨를招致한것으로第一의衝突은『리히테엘트갓세』에서 起하엿는데發砲한者가잇서社會黨員一名의即死가잇서維也納市中到處에는革命의騷이일어낫는바暴徒는다시中央保守黨系의新聞『라이히스포스트』工場을襲擊하고또反猶系新聞『웬널아、후스트나하리히텐』의工場도暴徒의襲擊을바더는데이가치되어維也納市中은大修羅場으로化하야各銀行工場은

黑煙濛濛蔽空

(伯林十五日發) 윈나電報에依하면濛濛한黑煙은同市上空을蔽하고暴徒는司法省附近家宅의掠奪을始하엿다自働車는全部撤廢되어臨時病院에서利用하는데午後에이르러群衆은公使館에突進하야『못소리니』를倒하라고絶呼하는바右暴動으로死者四○負傷者二百名을越하엿더라

休業하엿더라

同盟罷業

遂布告

(윈나十五日發) 總同盟罷業은布告되어各新聞從業員도此에加盟되엇더라

公會堂襲擊─

(윈나十五日發) 暴徒는다시市公會堂을襲擊하려함으로警察은다시群衆에게向하야發砲한外닭에公會堂前에는死者와負傷者가散亂하야午後一時半頃의光景은慘澹하엿더라

軍隊畢竟出動─

(윈나十五日發) 윈나市中은大混亂한外닭에政府는드되어軍隊에게出動을命하고軍隊는機關銃을携帶後各部署에就하얏더라

死傷者百餘名─

(윈나十五日發) 暴動과警察官이衝突된結果이미六名의死者와百名以上의負傷者를出하엿다午後三時警察側의發表에依하면死者六、重傷十六名、輕傷者百名을超하엿다하며또勞働同盟側情報에依하면死者二十名重傷八十名以上에達하엿더라

對中出兵問題

民政黨協議

(東京電) 民政黨은十五日午後二時부터對中問題特別調查委員會를開會하고對中出兵問題에對하야協議하얏는데田中內閣의第一第二次出兵은共히그理由의明確을缺하고한갓中國國民의反感을사는結果가됨으로區區한面目問題에拘泥되지말고日本外交의將來를爲하야速히撤兵할것이라는것에意見이一致되어近近聲明書를發表하기로되엇더라

세묘노푸氏 獨立夢想

(東京電) 最近『세묘노푸』將軍은露國內部의反革命의風潮를乘하야한번天下에號令하면『바이칼』以東에 서七萬의 兵을糾合하기가容易라하야極東의獨立은곳될듯시言하고잇는바今將軍의計劃은張作霖의對赤의確執을利用하야北中國에在留한白系露人一萬七千人을糾合後軍團을組織하고張作霖과協同하야張을援助하는同時에他方面으로그後援에딸아外蒙으로부터赤露의勢力을驅逐할方針을樹立하고極秘裡에策動中이라고傳한다또세將軍은目下假住地인長崎를出하야東京에在한다고傳하는바東渡의要件

白系露人 對赤積極行動

張作霖氏諒解下에서

日代表米全權訪問

(제네바十五日發) 齋藤全權은十五日長時間에亘하야會見하고...

數週間延期說

(제네바十五日發) 三國軍縮會議는來週中에어느程度의進步를보지못하면數週間延期가될지도未知이라는說이有하더라

阿片條約批准

樞院審議

(東京電) 樞密院의國際阿片條約을批准할件及此에伴한關東州阿片令中改正의件第一回精查委員會는十六日午前十時宮城內事務所에서開催하얏는데倉富議長以下關係官이參集하야政府側으로부터各御諮詢案의內容에對하야詳細히說明하고審議에들어가種種의質問應答이잇섯더라

段芝泉이愛讀하는 未來의大刧數(上)

中國亂은世界戰先聲

大連星浦水明莊에서悠悠히歲月을보내는段祺瑞氏는 어느날某日本新聞記者에對하야『이것은나의中國時局에對한 觀察과全然一致된意見이니아모조록日本全國民에게 소개하고십다고』傳하여달라고』六月四日 發行의天津庸報의新聞紙조각 곳『世界未來의大刧數』라고題한 探偵小說家『코난・도일』의豫言(同紙主筆魏仁和氏가 中國文으로譯述한것)을보이면서 이것을한번보고는반드시 다시돌려보내달라고」하엿는데 그內容은左와如하더라

×

不遠한將來에世界의大勝는險風暴雨가猝然히 일어날때에는 그實은의危險한前兆의 先驅인것에는疑義가업다 時代의 先驅인것에는疑義가업다 靈界의 介見人『허니아스』(俗說에鍊靈人의類)의 指示에依하면 全世界의人類는 將大部分이 陶汰가나서 世界의大部分이 消滅되려한다 그消滅의方法은 或은地震의 改良에依한것이니 極大한地震 海嘯가發生하야 米國은 큰影響을 바더陸沈의慘禍를 만날터이다라고 語하엿다 氏는今年六十八歲의 高齡이나 精神은饒鑠하고 健康은 恒常如一한

그靈界의 介見者는 英國의比亞人으로 「허니아스」라고불리는 上古時代의生活을하든靈人이 始한다 「허니아스」는...

臺銀問題로 內閣과斷念

能力업다고

(東京電) 臺銀整理問題는十五日의閣議에서成案을附議하야即時着手할藏相의言明도잇는外닭에一般은信用하고잇든바當日의閣議에서는드되어決定되지못하엿슴으로日銀當局及銀行家等은政府가當者川崎와또는臺銀에對하야何等의對策을보지못하고世間을騷動시킨것과內閣의財界安定의能力이絶無하면特히藏相의微力을憤慨하고內閣에對하야斷念하엿더라

辭令

府郡屬 金炳雲

任郡守 全南高興郡在勤 府郡屬 洪漢杓

任郡守 忠南靑陽郡在勤 府郡屬 金寶伍

任郡守 平南孟山郡在勤 郡守 朴善哲

命平南龍岡郡在勤 同 金化俊

命平南平原郡在勤 同 金永弼

命平南成川郡在勤 同 孔濩

命平南中和郡在勤 同 朴聖奎

命平南德川郡在勤 同 張淳應

命平南寧遠郡在勤 同 白星洙

同 金永植

同 李基瑞

同 川村直衞

同 岡崎淸

同 戶倉貫一

依願免本官

八面鋒

○ 武漢、南京의兩派戰은、早晚間難免이라고、畢竟、破裂이되고말터인가

○ 國民革命의、根本目的을貫徹하자면、軍閥、半軍閥을掃蕩할것은事實이겟지마는、武漢의勢力이、아즉그러케確立되엇슬가

○ 張作霖派의妥協은、蔣介石氏와直接交涉한다고、間接的交涉에熟火가낫군

○ 近日에、借脚郡守가만히난다 고退官金을낫게먹어도、할번宅보다는훨신조흔렷다

馮軍紀律嚴肅

徐州占領은確實虛傳

【奉天派悲觀說이또擡頭】

(北京十三日發) 黃河를渡한馮玉祥軍은이미二萬에達하얏는데軍紀律이嚴肅하야外人이生命財產을完全히保障하는一方에徐州占領은確實히虛報로判明되엇슴으로奉天派의悲觀說이또擡頭되

韶關에戒嚴令

陳嘉佑軍北江에進迫

(廣東十三日發) 陳嘉佑氏는蔣氏와聯結하야北江附近으로韶關에進迫하라는形勢가緊張하야韶關에는이미戒嚴令을發布하고廣東으로부터第二十五師의二大隊와李濟林의第二十六師全部를韶關、南雄에急派하얏더라

石潭九曲차저가서(上)

安民世

七月二日이다 午前에약간名所를찻고 午後에는歸京할準備로旅舍에서諸友와談話한다 劉瑞晃氏 石潭行을準備하고나에게力勸하므로처음뜻을되집고곳石潭行을斷行한다 劉瑞晃 李京鎬兩氏外에 一行이七人이다 交飯의午食을먹고 먼저龍塘浦를一瞥코저 自働車를몰아急行한다 仙女山의山은등을넘어瑞山短麓의사이로달어난다 首陽山連峰에比하면 이方面의平凡함이란比할수가업다 七八里나싸커나가서 甘藍과茄子와外他國이잇스니 中國人의耕作이다 中國人의 蔬菜經營은 海州에서는더가一般이지마는 海州에서는더욱만라한다 朝鮮人이農業國民이라하면서도都市의蔬菜供給이中國人에게占奪되는것은 猛然覺醒할必要가잇다

首陽山의등뒤로달어난다 右편으로長谷이구비진곳에神光寺의靈區를指點하면서 因하야一帶의長溪를씨고안진樹林이茂盛한곳에기와집처마가웃둑솟은것을보니 이는即文憲公崔沖의 書院으로서그後裔들이世居하는곳이다

松虫먹어싸칠한소나무들을左右로보면서 고개를넘어서 한참간다 손가락가는松虫이 더덕더덕부튼것이보기에도징그럽다 다시平野部에나려서니 朝鮮式으로된席洞公書마당에는藤蔓의의쏫이피어서 農村學校의本色을가진것이반가웟다 개울에는訓導의夫人잇듯한洋머리언진젊은女性이빨래를해서물을탈싸는양이同情이간다

차차고개를넘을수록田畓이더욱肥沃하고 山容이가지록秀麗한데 못갓가리쏘벗하고나무가다부룩하게된上峰을바라보며조은재를넘어가니 이곳은即有名한石潭九曲으로서 深邃靈明한氣像이 저절로賢者에居하든영이것을에맛게한다.

政府의補助로써장차着手할計劃이라한다 現在黃海道一境旣成畓十三萬一千一百六十町步로서米產額이 平年八十五萬石이라하거니와 이것이完成되는날에는一躍하야 그倍額이된다할것이다 海州와沙里院이近者消廳의爭奪로서 隱然히서로시새워하지마는 龍塘浦가築港되고鐵道가開通된다하면 或은消廳은永久히구들것이오 그와正反對로道廳쯤은讓渡하여도 無妨할는지금으로서는 判斷키어렵다

몰아보매龍塘浦의埠頭에는一列로된粗忽한家屋이 數十戶쯤되어서 바로十室殘村의몰골을벗지못하엿고 그나마도거의全部가日本人으로되엇다 築港完成하는날에朝鮮人이얼마쯤根據를잡을는지는疑問이다 이點은一箇로써미리同胞에게警告하여둔다 지금에는여긔警官派出所가잇고 水產組合이잇다

海濱岩角 들어부튼굴짝지를발부면서 都市에작드든腦를식히다가 곳바로自動車에올라石潭行을맞부게한다 邑內外지되돌아갓다가 西邊面으로싸져서

五十萬圓의築港費中 二十萬圓은國庫補助로 二十萬圓은海州地方費補助로 十萬圓은海州邑로한附近各郡의人民의負擔으로한다하며 警察當局은이理由로民間의다른寄附는금지하게된다한다 龍塘浦의海曲이 右로西邊 海南兩中間으로들어가長三十里廣十里에갓가운淺水의灣을이루엇데 이물만일堰塞하면넉넉한十萬石의벼를收穫하리라하야倉氏外數三의日本富豪들이

故障많은共產黨事件 往苒三載에公判

삼년이란세월을걸처노코석을다가 이제야겨우공판을열게될모양이라고

期日은來廿五日로內定 傍聽은絶對禁止方針

사건에서 검거로 경찰에서검사국으로 검사국에서 또다시예심(豫審)으로삼년동안이나끌고도 오히려 거칠새가만하 당입한재판장의신병으로또한달을거커잇든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은당임판사를변경하야 정성목심법원 시본(矢本)판사가 심리하기로 결뎡한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공판기일을결정치 못하얏든바 십륙일에 이르러 오는이십오일 오전아홉시부터 정성디방법원 데삼호법뎡에서 시본판사의심리와중야(中野)검사의 립회로 공판을개정키로결뎡하얏는데 이에 대하야 장미검사정(長尾檢事正)은 알에와가티말하더라

긔일을 오는이십오일로 결정하엿다고요? 나는 아즉그런말을 못들엇습니다 그러나그때에 그러케 손쉽게열리게될는지가 문뎨입니다 지금가타서는 넘우 바두하엿슨즉 엇더케될는지 알수업습니다 방텽은 물론금지할것입니다 그러코 저러코간에 하루나이틀에 씃날것이 아닌즉 매우여러날걸릴줄밋습니다

지금까지決定된 辯護士廿四人

公判은十五日間繼續?

【전부무료로동정변호케되엇고 일본에서까지출상변론을할터】

조선공산당사건의 공판을 오는이십오일로 결정하얏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사건의변호인(辯護人)은아즉까지도 완전히결정되지못하얏는데 아즉까지결정된변호인은 김병로(金炳魯) 리인(李仁) 리승우(李升雨) 한상억(韓相億) 김용무(金用茂) 김태영(金泰榮) 최진(崔鎭) 포시진치(布施辰治) 청뢰일랑(淸瀨一郎) 서긔홍(徐基弘)씨등으로 이상제씨는 긔록(記錄)을가져간변호인이며 기타로도 리희적(李熙迪) 탁창하(卓昌河)씨등 기타제씨를 합하야 이십사인 이라는바 권긔제씨는 모다무료로 동정변호를 하는것이며 이외에는 김병로(金炳魯) 리인(李仁) 리승우(李升雨)등삼씨는 이번긔록인쇄비(記錄印刷費)삼천륙백원중에서 륙백원을공동분담으로 하얏는데 긔록은권긔삼씨에게 잇슨즉 변호를하고자 하는이는 권긔삼씨에게 동긔하면 어들수잇다는바 긔록을영구히 논아가질수는업스며 잠시빌리는 것으로 매통에 오십원식의 긔록비를밧고야 빌리게되리라는데 변호사김병로씨의 말을들으면 공판이 적어도십오일간은걸리리라더라

辯護안는着手金

청구하면찻는다

공산당사건의변호위입을밧거나 혹은자원을하고 변호인이 오래동안매일참예할수가업스리라는바 중구광태랑(中口光太郎)이라는 일본인변호사는 이사건의유료위임(有料委任)을바다 착수금(着手金)일백오십원을 바든일까지잇섯는데 자긔사정으로일본을가서잇기까닭에 이번공판에 참예치못할모양이라는데 그러한경우에는 사건을 위임한사람이 착수금반려청구(着手金返戾請求)를하는것이올타더라

滿洲移住朝鮮農民 保護研究會創立

이주민의생명재산을보호코저 長春在住有志發起

남북만주(南北滿洲)의관문지대인 장춘(長春)에 재주하는여러유지의 발긔로 날로 달로그수효가붙어나감에 딸아말할수 업는정치뎍(政治的)경제뎍(經濟的)박해와압박이 거듭미처오되 하등의 권위잇는 의지가업는 조선이주농민의 건전한보호뎍 배경을세우기위하야 얼마전에 그보호연구회의 발긔총회를 마치고 창립총회준비에 착수하여 오던바 불의의 사정이 돌발되어 부득이잠시총회개최를연긔해오던중 금월십삼일에 마츰내 장춘시내서뎡 신영공사(長春市內西町 新永公司)내에서 창립총회를열고 여러가지로 의사를 진행한결과 이주민보호재원(保護財源)문데와 회명(會名)을 만주이주조선농민보호연구회(滿洲移住朝鮮農民保護研究會)로 고처서 전만주농촌에 산재한 조선이주농민의 생활상태를 묘사할일과 또는재만각유력단데급조선인각단데와의련락을 취할일등의 여러가지의 결의사항이 잇섯스며 동회의선거된 임원은 알에와갓더라(장춘)

▲任員‖會長成錫股 副會長黃錫禹 總務金利三 庶務部長甑承浯 顧問李春基

三九會事件에 無名會奮起

긴급회의를열고 응징을결의하여

경상남도 통영(統營)에잇는 삼구회(三九會)의 작당폭행사건에대하야 무명회(無名會)에서는 십사일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결의를 하엿다더라

◇決議文◇

一、所謂三九會라는暴力團體의 [illegible] 調查하는同時에그를變除하기에努 [illegible] 의暴行事實은그것 [illegible] 이아닌것은一時的인感情 [illegible] 確實히組織的이요 [illegible] 實을綜合하야볼지 [illegible] 行임을判知할수잇 [illegible] 러함을不拘하고統 [illegible] 局은何等의公正한 [illegible] 現職警官이잇서서 [illegible] 안흘뿐아니라그暴 [illegible] 도오히려傍觀的態度를取하엿다함은地方警察의無能이라할보다도이犯行의裡面에잇서暗暗히그것을默認한것이라고밧게볼수업다그리하야本會로서는此에對하야統督警察當局이速히誠意잇는態度에出하기를警告함

暴雨로倒壞中 發火하야全燒

이번장마가나흔한비극 一家七名道路彷徨

수원군수원면산루리(水原郡水原面山樓里)일백칠십삼번디 차덕유(車德裕)의집은 원래퇴락하기작이업던중 이번장마비로 인하야 지난십사일오후 열시경에문허지자 방안에두엇든 화루가뒤집히어 불이일어나 문허진 집이나마 기동하나 남기지안코 모다태워버렷다는바 불행중다행으로 인축의사상은 업섯스나 그것도집이라고 의지하고 살던 그집안일곱식구가 이장마중에 로두에나서게된 정경이야말로 참아볼수업다 더라(수원)

쌜래하든老婆 濁浪에溺死

강안이문허저서

지난십오일 오전구시 삼십분경에 평양부신정(平壤府新町) 오십칠번디 최성녀(崔姓女)(六三)라는로파는 쌜래질을하려 유곽(遊廓)압 대동강에나갓다가 강안(江岸)이 문허지는바람에 잘못되어 강가운데에써서 탁랑(濁浪)속에장사 지내엿는바 그시톄는즉시건저서 그의친족에게인도 하엿다더라(평양)

長春馬賊團 刑事를射殺

십사일밤에 장춘공원(長春公園)에잇는 일본음식뎜 복강옥(福岡屋)에 다섯명의마적이 침입하다가 경계중의 장춘서(長春署)형사에게 들킨바되매 마적들은 권총으로 동형사를쏘아 죽인후 하등의소득이업시 다라낫스며 경찰은즉시 비상선을늘이고 범인을 추격한결과 한명의마적을데포하엿스며 더욱권총소동으로인하야 권긔요리뎜의 하녀는 긔절이되어 넘어지고 기생두명은 역시혼비백산하엿섯다 더라

免職된巡查 依然巡查行勢

각처에서협박공갈

충청북도 영동군황간면 마산리(永同郡黃澗面 馬山里) 김복경(金福經)(二三)은 지난오월까지 경상북도김천경찰서(金泉署)순사로 재직하다가 부정한행동으로 면직을당한후 여전히순사의 버릇을 고치지못하고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의연히순사라 가칭하고 어리석은 시골사람에게 거짓을부려 벌금이라고바더서 [illegible] 렷하고 또남의상뎜에가서 상품을강탈하든중 수일전에는 충남론산본뎡 림흥숙(林興淑)의집에 이르러 로비십오원을 강청하다가 정탐경관에게 톄포되엇다 더라(강경)

露中國境系爭問題

五十年來開墾한沃土 卅萬餘坪一朝見奪

오십년이란긴세월에피땀을흘려가며 개척해노흔옥토를하루아츰에빼앗겨

五百同胞去處無路

두보‖중국대안양관(對岸洋館)의 중로국경계쟁문제(中露國境係爭問題)는 [illegible] 권히 분규를거듭하며 [illegible] 께는 완전히로국의 세 [illegible] 어가버려 중국측은 [illegible] 보려고도하지안는다는 [illegible] 하야생로(生路)가 [illegible] 방 거주동포오백여명 [illegible] 로처번파견된박이섭 [illegible] 는훈춘현서(琿春縣署) [illegible] 긔사정을 하엿든바 [illegible]

不潔氷押收

[illegible] 합하고커 지난이일에 권부철퇴(撤退)하엿다 더라(옹긔)

지난십이일부터 삼일간 대구서(大邱署)에서는 경찰부 위생과(警察部衛生課)의응원을어더 시내시외의얼음커장소들을일일히 립검하야 얼음중에 조사한결과 불결한얼음이만히잇섯슴으로 그들권부압수하고 엄중히 처벌한다 더라

黃海浸水畓 九千餘町步

해주강우량삼백이십오미리 大麥被害는一層尤甚

십오일오후 일곱시반에 황해도지사로부터 식산국(殖產局)에도착된 보고를보면 십오일까지 황해도각군을 통하야 련속뎍으로 비가내려서 강우량은 통산하면 해주(海州)가 삼백이십오미리에달하고 현재판명된 수도의침수면적은 다음과가타 실로구천여뎡보에 달하며 아직도 강우는 계속중으로 보리의수확은 이할밧게 안되어 상당한피해가잇겟슴으로 목하조사중이라더라

▲鳳山二、四〇〇町步▲信川一、九九三町步▲延白六〇〇町步▲載寧一、二〇〇町步▲安岳二、七三二町步▲長淵一一六〇町步▲計九、〇七六町步

大田病院에 밤마다投石

시장까지한산지경

대전춘일정일뎡목(大田春日町一丁目)에잇는 대전병원(大田病院)에 십여일전부터 오후여덜시만되면 돌을던지기 시작하야 오전두시면 끗치는 괴상한일이 잇다는데 돌에다가 글도써서던진것도잇는바 그글에는 만일칠월십일까지 이집을 옴기지아니하면 십일일날밤에는 너의가족을 죽이던지 불을지르리라는등 협박문구를 잉크로 일본말로써서 밥풀로 돌에부치어 던진것도잇다한다 대전병원은 물론경찰서를 위시하야 소방대까지총출동을하고 경계망을 늘이어스되 돌은여전히 떨어짐으로 일반의 이약이거리가 된다는데 십일밤 [illegible] 는구시경에는 시장까지한산하다 더라(대전)

二十錢에一年懲役 每月平均一錢六厘强

【假專賣局員에鐵槌】

권매국원이라고농민을공갈하여 이십전을빼서먹고일년징역을해

충청북도 보은군내북면 대안리(報恩郡內北面大安里)에본적을두고 각처를배회하는 김성옥(金成玉)(三三)이라는자는 지난팔일에 공주디방법원 청주지텽(公州地方法院淸州支廳)에서 공갈(恐喝)죄로 징역일년의 판결을밧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얏는데 그내용을들으면 그자는 지난륙월사일 오후두시경에 청주군가덕면 금거리(淸州郡加德面金居里)길가를 지나다가 길가에서 풀을베이고잇든 동리신흥우(申興雨)라는 사람에게 주머니에 입담배(葉煙草)가잇지 아니하냐고 물어가지고 결국 그의주머니 속에잇는 입담배한우큼을 쓰내인후 자긔는 전매국원(專賣局員)인데 그대가 입담배를 가진것은 전매령위반이니 벌금으로 오십전을내라고 공갈한후 이십전을 편취한것이 발각된것이라는바 이십전에 일년징역을 하게된은 실로진긔한일이라하며 이것을 계산하여보면 매개월에 일전륙리강(一錢六厘强)이되어 결국일전륙리씩의징역을하는것이라더라

馬山海岸에 貴童屍漂着

지난십오일 오전여섯시쯤 되어 어떤어린아이의 시톄가 마산해안(馬山海岸)에 표착하여잇는 것을 마츰그곳까지 산보나갓든 마산서(馬山署)에동시한결과 탕천사법주임(湯川司法主任)과김(金)의사가출장하야 그날오전 열시부터 당디척산천(尺山川) 다리알에서 해부한결과 죽은원인은소장염(小腸炎)으로 생후약일개월만에 죽은것이라하며 몸에버린원인은 자세히알수업스나 싸매인의복을 보건대 상당한가뎡의귀동자로서 엇더한 미신으로 그와가티 물에씌워버린듯 하다더라(마산)

筏橋無產青年創立

전남보성군 벌교면남상무산 청년회

(全南寶城郡筏橋面南上無產青年會)에서는 창립총회를 십삼일오후 여덟시부터 당디동사(洞舍)에서 거행한다함은 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예정과가티 정각전부터 모인인사는 무려수백에달하야 대성황을 일우웟스며 정사복경관의 경계중에 동회위원리일(李一)씨의개회사와 순천농민련맹회(順天農民聯盟會) 김익두(金益斗)씨의축사가잇슨후 여흥으로 벌교청년회(筏橋青年會) 음악대의주악으로 본회의취지와 주의를선언하며 연극(演劇)으로써 관남재의흥미를 도왓는데 이번에 자발뎍의연한인사는 알에와갓다고(벌교)

李永達 無名氏各三圓 金基股 金永錫 金甲斗 無名氏各二圓 金光洙 羅正綸 金泓中 殷基 桂錫 羅正冠 申貫洙 南各一圓 黃炳逸二圓 無名氏五十錢

清津海岸에 醉中溺死屍

원적을함남문천군귀산면황죽리(原籍咸南文川郡龜山面黃竹里)에두고 현재청진부신암동(淸津府新岩洞)에사는 김중빈(金仲彬)(三三)이라는사람의 시톄가 지난십삼일하오두시에 청진해안에 발견하엿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김중빈은 음력십일에 풍랑이심한연고로 고기 잡으러가지못하고 선원과가티 방에서 술을먹다가 술이취함을딸아 선원들이 잠든사이에 김중빈은 배에서 나오다가 실족하여 그만물에싸저죽은모양인데 그의일부선원들과 김중빈의 처는 아모리 차잣스나 종적이업슴으로 적지안흔 근심중에잇다가 삼일되는날에 다른고기배닷줄에 보기에도 참혹한 김중빈의신톄가 무더올라왓슴으로 신톄는 고향사람들의 주선으로 신암동공동묘디에 매장하엿다더라(청진)

卅餘演士檢束

批判演說依然繼續

덩중은○○노래를고창

【總督政治批判演說會】

조선총독 실정비판 실행위원회(失政批判實行委員會)에서 십일일오후칠시부터 재일로동총동맹관서련합회、로동당、수평사등의 후원으로 대판시서성(大阪市西成)조선로동조합회관에서 조선총독정치 비판연설회를 개최하엿는바 수천여명의 청중은 회장의내외에 넘치고립석 [illegible] 경관수십명의 엄중경계리에 박영만(朴永萬)씨의사회로 연설회는 계속되엇는데 삼십일명의 검속자를 내엇스나 동연설회는 끗까지계속되어 십일시경에 폐회하엿는바 폐회후의 청중은 회장 [illegible] 하면서 혁명가를고창하야 다수의 검속자를내엇다 더라(대판)

平壤、安州、義州等 土工과人夫로轉輾

봉텬을거처로령에까지굴러들어가 농사까지지어노코병으로눕우나와

黃看守脫獄後經過

상해가정부원(上海假政府員)으로 살인강도(殺人強盜)라는 무서운죄목을가지고 원산형무소미결감(元山刑務所未決監)에 가치어잇든 엄태섭(嚴泰燮)을 은밀히달어내어 도주하게한 원간수황송률(元看守黃鍾律)은 신병으로인하야 자긔집에돌아왓다가 테포되어 목하원산경무소에수용되어 도부(渡部)검사의손에 엄중한취됴를밧고잇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대데황송률간수가 원산을도주한후 오늘날까지 일년사개월이란 긴세월을지난경로를들으면 다음과갓더라

그날밤간수부장실(看手部長室)로부터 쇠써(鍵)를훔쳐내어 감방으로부터 엄태섭을 달어내엇더니 엄태섭은 자긔동지다섯명도 내노하달라는고하기써문에 황송률은 또그다섯명도 써내어가지고 뒤문(後門)으로가려고하든중 긔결수중의 미친녀자(狂女)가 소리를질으기써문에 부장이 순시를올가바 생각하고 달어내엇든 엄태섭외다섯명을 각각감방안에 몰오너허두고 십륙일밤에 다시 부장실에서 쇠써를 도적해가진후 그날밤에 동근하는간수에게『그대를차자온 사람이 뒤문(後門)에와잇다』고 속이고 그틈을타서 엄태섭을 써내어서 정문(正門)으로나아가는 원편변소안(便所內)에숨겨두고 자긔가 정문을 직히는순번이 오기를 기다려 오전한시경에 정문으로부터 엄태섭을 도주시키고 자긔는 간수공실(看手控室)에돌아와 간수복을버서노코 정문을나왓다

옥문에나와본즉 엄태섭의 그림자는 보이지안코 주저하다가는 테포될념려가 잇기써문에 와우산(臥牛山)숩속에들어가 그로부터 산로를조차 안변군서곡면(安邊郡瑞谷面)의 자긔집에갓다 또다시 산과산을넘은지 수일만에 평양(平壤)을 당도하야 감부(監夫)와 토공(土工)으로 얼마간로동하고 또다시 신의주(新義州) 봉텬(奉天)에가서 혹은 로동자도되고 혹은 텰도공부도되어가지고 속깁히 점점들어 가는것이 로령『쿠레데코』에 다달아서 이곳은 자긔가 평안히살수잇는 곳이라하야 농사까지 지어 가을(秋)의 수확까지 마티고나서 폐병(肺病)에걸려 그곳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엿스나 용이하게 권쾌될희망이 업겟다고 단념하는동시에 죽기전에 모국(母國)에돌아가 부모처자나 한번 맛나보겟다는 생각을하고 금년 사월경에 로령을 써나오는도중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의소개를어더 가지고 지난륙월이십륙일 안변군서곡면의 본집에 돌아왓든 것을 안변경찰서(安邊署)에서 탐지하고 데포한것이라더라(원산)

異域에서어든惡疾 夢寐에그린祖國

각처로돌아다니다가 말경엔로국에들어가

嚴泰燮外五名도 同時脫獄計畫

엄태섭만쓰내정문으로내노코 자긔도간수복벗고뒤쏠아나와

【狂女高喊으로不成功】

첫재로 황송률의 도주경로를들으면 황송률은 작년이월십사일 밤『도주하든이듸권방』에 엄태섭과 협의한후 도주하기를 결심하고 [illegible]

保衛團도撤歸

지난이일에철퇴

[illegible]

漢江刻刻減水 安堵한沿岸住民

쌜래소리만한참밧부다

【오래간만에보는晴天】

권조선은 물론이요 더욱이한강연안일대의 주민을 공포케한련일홍우도 십오일오후부터는 완전히개엿다 한때십메돌을 돌파한한강의 수위도점점내려서 십륙일오전일곱시의한강상류는칠메돌륙십일 동구시에는칠메돌륙십으로감수되고 또한강인도교부근은 칠메돌오일최고수위 칠『메돌』삼십에서 십륙『메돌』사십 [illegible] 시에는 륙메돌이십오로 [illegible] 는한편임으로 이제부 [illegible] 가승도커옥이안당되리 [illegible] 편오래동안의장마에 [illegible] 쌔는쌜래방망이소리는 [illegible] 의개천을울리고잇더라

技競運動

松山留學生 籠球戰割 市內六中學과

既報=松山高等學校朝鮮留學生籠球故國訪問團은着京以來霖雨로因하야그동안市內尹完善氏第에서休養中이든바十八日부터다음의六校와對戰할것을우선決定하엿더라

培材 中央 徽文 養正 第一高普 進師

朝鮮體育會 幹部의新陣容

朝鮮體育會의第八回定期總會는去十五日午後五時부터市外永導寺에서開催된바前年度收入二千六百四十圓二十六錢支出二千四百六十八圓十七錢의決算報告와新任委員을三十名候補名中에서다음의二十名을選出하고新事項은新任委員에게一任하기로하엿다

金圭冕 金東轍 金東進 金永述 高永翰 李相鎬 李乙 李吉用 李瑞求 馬春植 朴勝彬 朴昌夏 朴昌薰 朴天秉 徐相國 徐丙義 兪億兼 車寬鎬 崔寅真 文正柱(가나다順)

十七日의運動

▲八幡製鐵對鐵道局野球戰 午後四時부터龍山球場▲拓大對鐵道庭球午後二時龍山코트

運動界動靜

△朝鮮體育會委員會 十八日午後八時同會館에서